

콘스님 수행한담

욕심부터 덜어내세요



1982년 4월 동국대 총장 재직시 김법린 황유돈 권상노 스님 등 세 스님의 박사 학위 수여식. 사진 앞줄 왼쪽부터 박대훈 당시 태고종 2세 종정, 임석진 당시 태고종 총무원장, 양주동박사·김법린·황유돈·권상노스님, 보성스님, 前 속대총장 김두현박사, 김동희박사.

로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나를 먼저 버려야 한다"는 가르침을 우선으로 지켜야 할 불교가 '나'를 서로 내세우다보니 나타나는 것이지요. 분명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한 가정을 보더라도 울타리가 튼튼해야 그 안의 사람이 든든하고 가족이 임신여감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불교계도 교새나 인물 그리고 사업으로 사회적으로 내놓을 것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보다는 다양화되고 대중화됐다고는 하지만, 불자들이 대오각성해야 합니다. 자기를 접어두고 이웃과 나라를 먼저 생각

남성층이 현격하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대를 걸게 하고 실제 불교계에서 역할할 계층은 이들이라고 봅니다. 각급 초 중 고교와 대학에 있는 불교동아리가 불교계 앞날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들 불교학생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불교에 관심이 높고 불교 진리를 좋아해서 믿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부처님 양식을 한 톨도 먹지 않고도 자연적으로 탄탄하게 키워지는 인물들이겠지요. 이들 재가불교가 큰일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스님들이 사회를 지도할 눈은 이들이라면 결국 현실 속

“종지 종풍 같은 한국불교 종단들 사람만 갈라진 분열 욕심의 산물 결국 불교 약화되는 길이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부처님 덕분이지요. 그래서 나는 동대 총장을 그만 두면서 늘 마음속에 지닌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남을 지도하는 것은 정적으로 부처님 은혜다. 따라서 내 재주가 배운 것을 가르치는 것이니 후진에게 그저 열심히 가르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태고종에서 처음으로 파주 법륜사에 비구니 강원을 열고 무료로 <초발심자경문>부터 <화엄경>까지 약 4년 기간을 단위로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10여년 지내다가 서울 정릉 천주사에서 다시 비구니 강원을 열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할 때는 짧은 보살들도 강의를 듣고 싶어했지요. 당시만 해도 불교학이나 사상을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부족했거든요. 지금이야 얼마나 교양대학교 열고 특별법도 마련하니 좀 좋습니까. 돌이켜 보면, 불교학문은 견실한 신앙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마치 종교가 믿음의 토대위에 형성되는 것과 같은 연장선에서 생각하면 돼요. 그래야 깊이

전하려고 노력하지요. 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지중하게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갚아야지요. 그래서 가르칠 줄 아는 재주 또 스님으로서 법을 전파하는 것으로 은혜에 보답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절 보림사에 온 것이 꼭 7년 됩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치악산 수도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년전 일이지요. 서울생활을 정리하고 원주로 내려오면서 책을 보지 않으려고 그동안 소장했던 9백여권의 장서를 동방불교대학에 모두 주고 왔어요. 나름대로 출가분하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와서도 출가자로서 사명을 해야겠기에 인연 닿는대로 일정을 잡아 정기적으로 법문을 했습니다. 또 종단에서 맡은 위치도 있고 사회적으로 해야 할 회향도 있더군요. 그러다보니 또다시 결국은 이렇게 책이 50여권 책장에 쌓이게 되더군요. 요즘은 그 덕분인지 정신건강은 많이 좋아지는데 시력이 나빠졌습니다. 장수하려면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부처님게서도 중생의 가장 지독한 해악이 탐진치 3독심이라고 하셨듯이 3독심 가운데 욕심만 해결되도 오래 살 수 있어요.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은 사실상 많이 힘겨운 고행이 될터이니 욕심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많이 가지면 우선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그 불안한 마음이 몸을 상하게 하거든요. 그러나 건강하고자 한다면 또 오래 살고 싶으면 소욕의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양심에 비추어 적어도 욕심을 내려고 허둥지둥 하지는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저 조용하게 차분한 생활을 즐겨 소심 함정도 아니었나 싶습니다. 나라가 많이 어렵고 국민들이 힘겨워 합니다. 국토의 분단에도 경제적 난국이 닥쳐왔습니다. 그럴수록 욕심을 덜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극복할 수 있다는 용심으로 똘똘 단합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 정신을 계도해야 할 승단은 불화의 모습이 세상에 덜 비쳐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부처님 정신에 입각해 자존심과 자긍심으로 처리하는 덕성(德性)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위영란 기자 (vryui@buddhapia.com)

“내일위한 행복의 씨앗 지금 뿌리세요” 불자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포교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흥하면 나라가 저절로 밝아진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불교 위한다는 마음과 함께 나라를 위한 자제로 실행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교의 미래는 재가불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눈을 돌려 중국불교를 보면 확연해집니다. 중국불교는 과거 총림 중심의 사원불교였습니다. 공산치하가 되면서 종교가 억압받고 자연히 승단의 출가 불교는 없어졌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다고 불교의 맥이 끊기지 않았습니까. 지하운동으로 재가불교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불교계에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세불교와 현대불교 상황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노인 여성 중심이었던 것이 청년

에서 불교를 통해 이끌어가는 것은 재가 불자들입니다. 생활불교라는 것이지요. 모든 불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각자 자기 가정에서 불교를 실천하고 이것이 이웃으로까지 퍼져나갈 때 비로소 불교가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불자라면 자신의 배우자 자식 등을 포함한 가정을 교화하고 그 힘으로 이웃에게 부처님 법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회로 확산되는 전법의 바람직한 단계이지요. 그러니까 우선 안에서 밝아져서 밖으로 비쳐나와야 합니다. 나는 11세에 건봉사에서 동진출가했습니다. 삼보장재로 불교학문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고 국내 대학을 마치고 일본유학까지 해 불교학과 사학을 공부했습니다. 이후 43년도부터 62년 동국대 총장으로 퇴임할 때까지 교육계에 종사할

와 넓이가 든든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국대학이 대표적인 불교대학이라면, 조계종에서 하는 정규대학으로 중앙승가대학이나 우리 종단이 정규대학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방불교대학 등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신앙과 학문이 겸한 인재양성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무엇보다 불교학 발전은 기성 불교학자들이 과연 어떤 사람을 만들어 내느냐는 의지와 노력과 실제 성과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제자들이나 인터뷰를 할 때 내가 학자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합니다. 또 아흔세월이 넘다보니 건강유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해요. 나는 늘 강조합니다. 사람답게 사는 길은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선 나 스스로도 애써 실

나와 경전



대방광여래장경



강명희 동국대 강사

<대방광여래장경>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여래장(如來藏·tatahagata-garbha)을 설한 경전이다. 연꽃이 진흙탕 속에서 피어도 그 아름다움은 결코 진흙탕에 물들지 않듯이 여래장은 본래 맑은 여래법신(佛性)이어서 번뇌중에 있어도 번뇌에 더러워짐이 없고 본래부터 청정한 깨달음의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대방광여래장경>인데 특히 이 경에서는 "일체 중생은 모두 다 여래장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선언적으로 공포하고 있다. <대방광여래장경>이 담고 있는 모든 중생의 성품은 내에게는 거의 충격적인 사상이었다. 대학시절 사회운동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사회운동을 적극적으로 막은 가족들에 의해 변화하는 스스로를 경험하였고 그 과정 속에서 허망한 내 존재를 느꼈다.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어왔던 나의 신념이 서

뇌 속에 은회해도 번뇌가 없어지는 순간 중생에게도 여래의 지혜와 법신이 나타난다고 설하고 있다. 특히 여래장에 대한 9가지 비유는 구경일승보성론과 불성론에 계승되어 조직적으로 체계화 되었다. <대방광여래장경>에서는 우리의 현실을 ① 시든 꽃 가운데 있는 부처님 ② 맑은 발굽 속의 달콤한 꿀 ③ 거대한 기 속의 알맹이 ④ 더러운 속에 있는 진금(眞金) ⑤ 땅 속에 있는 금 은보화 ⑥ 중자 속에 있는 씨 ⑦ 더럽고 낡은 옷에 싸인 진금상 ⑧ 찬한 여인이 화인하고 있는 전륜왕 ⑨ 장막 속에 있는 금상 등의 9가지로 비유해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시든 꽃과 맑은 벌, 거대한 기 속의 알맹이, 더러운 속에 낡은 옷, 찬한 여인, 장막 등은 중생이 번뇌에 덮여진 상황을 의미하고 있으며, 부처님, 달콤한 꿀, 알맹이, 진

“누구나 여래종자 간직하고 있다” 나와 너 서로 존중하라는 가르침

서히 무너지자 그때 '자신의 의지와 마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불교를 접하게 된 것도 바로 이때였다. 그 시절 여러가지 어려움 겪으며 대학원에서 불교를 전공하다가 나는 우연히 여래장 사상을 접하게 되었다. 여래장 사상은 한마디로 놀라운 것이었다. 사회운동에서 내가 접했던 이데올로기나 휴머니즘을 모두 포함하는 여래장 사상의 폭넓은 상상력을 초월한 것이었다. 사용자도 고용자도 그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본성이 중요하며, 모두 부처님의 성품을 간직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때부터 나는 여래장과 관련된 경전을 본격적으로 탐독하게 되었다. <대방광여래장경>은 <부처불장경> <승만경>과 함께 '여래장삼부경'이라고 일컬어지며 이중에서 가장 먼저 성립된 경이다. 1권으로 되어 있으며, 8세기 중엽 인도출신의 학승 불공이 번역했다. 작은 경전인 만큼 매우 간결한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내용도 소박하다. 중심 내용은 누구나 여래의 품성과 여래종자를 모두 간직하고 있으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번뇌방상과 무지에 싸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번

스님들의 수의도 짓고 있습니다. btn 문화사업단으로 연락주십시오!

極樂往生服

“윤달이 든 해에 수의를 짓는 일 이보다 값진 효도는 없습니다”



수의를 윤달이 든 해에 짓는 것입니다. 꼭 윤달이 든 해에 수의를 짓는 것은 윤달은 공달이라 하여, 사람들에게 오늘을 무병장수 내일은 극락왕생 할 수 있도록 축복하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회갑, 진갑이 가까워 온다면 올해 수의를 지어 드리십시오. 일생에 한 번 밖에 할 수 없는 값진 효도가 될 것입니다.

불교텔레비전 btn이 효심깊은 불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윤달에 짓는 수의 '극락왕생복'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btn 문화사업단으로 연락주십시오.



btn 가까이 있는 진리 불교텔레비전 32 문화사업단 우 121-734,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 전화: (02)3270-3366 팩스: (02)3270-3498